

# 1966년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

楊아람\*\*

- |                                |                                  |
|--------------------------------|----------------------------------|
| I. 들어가며: 전집 발간과 사르트르 초청        | IV. 양가주망과 현실: 히로시마(広島)와 베평련(へ平連) |
| II. 방일 이전, 일본의 사르트르 번역         | V. 방일과 대중 독자의 소비                 |
| III. 1966년 사르트르의 일본 방문과 일본 지식계 | VI. 나오며                          |

## • 국문초록

이 글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의 일본 번역과 1966년 일본 방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사르트르는 1960년대 중후반까지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사르트르에 관심이 상당한 일본에서 1966년 사르트르의 방문은 최대의 문화이벤트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 전집』을 간행한 교토의 인문서원은 사르트르에게 ‘일본휴식여행’을 제안한다. 사르트르는 28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세 번의 강연과 히로시마 방문, 베평련 대회 참가였다. 일본 지식계가 세계적 지성 사르트르와 지적 교류를 하는 국면이다. 그의 방일 연구는 외국문학의 번역 수용뿐만 아니라 당대 일본 사회의 지성사를 제한적이지만 究明하는 가치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본의 사르트르 번역과, 초청 사업을 통한 문화 교류 및 수용의 확대, 일본 대중의 사르트르 서적 소비 등을 고찰하여 당대 일본의 지성사와 다층적이고 통시적인 번역문화 현상을 규명하는 번역문화사 연구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H1A2A1042376).

\*\* 고려대학교 일본문학·문화전공 박사수료

주제어 : 양가주망, 실존주의, 지식인, 베트남전쟁, 히로시마 원폭

## I. 들어가며: 전집 발간과 사르트르 초청

이 글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 이하 사르트르)의 일본 번역과 1966년 일본 방문(9.18-10.16)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르트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로 세계에 이름을 떨쳤으며 소설 『구토(La Nausée)』<sup>1)</sup> 등 실존주의 문학을 통해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되었다. 그는 인간을 투기된 존재로 파악하고 불안, 無償性, 자유 속에서 실존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제시한다. 그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실존주의이지만, 카뮈(Camus)와의 논쟁,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의 계약결혼, 노벨상 거부, 알제리 전쟁 반대,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의 사회참여 또한 ‘사르트르’를 세계 속의 중심에 서게 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소설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1960년대 중후반까지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대 최고의 작가가 1966년 방일한다는 소식이 일본에 널리 퍼졌다. 당시 일본에서 사르트르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 거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 무렵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르트르의 전집을 간행했다. 이처럼 일본사회에서 사르트르에 관심이 상당한 현실에서 그의 일본 방문은 최대의 문화이벤트라 할 수 있었다. 프랑스 소설의 일본어 완역 출간과 세계적 지성의 초청은 1964년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국력과 지적 문화 수준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수용과 관련해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라노(浦野衣子)는 사르트르의 유입은 일본의 전후책임과 지식인의 ‘정치참여(양가주망)’의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파악한다.<sup>2)</sup> 마스다(増田靖彦)는 전후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은 그의 실존주의 사상을 오직 철학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의 문학보다는 희곡이나 문예비평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한다.<sup>3)</sup> 이시이(石井素子)는 사르트르의 수용이

1) 작가 지망생이었던 사르트르는 1931년부터 거의 6년간 이 소설에 공을 들인다. 비록 상업적인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는 원고 제목을 ‘멜랑콜리아’로 부제는 ‘양투완 로캥탱의 비밀상적인 모험’으로 정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장근상, 『사르트르의 『구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97면.

2) 浦野衣子, 「日本におけるサルトルの移入にめぐって」, 『比較文學年誌』 1, 早稲田大學比較文學研究室, 1965, 131~147면.

공습을 피한 교토출판사의 活況, 『사르트르 전집』의 간행, 수용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사르트르 방일’이라고 논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일본에서 사르트르의 유입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만, 사르트르에 대한 일본의 통시적 번역, 방일과 강연, 대중독자의 소비를 포괄하여 논하고 있는 번역문화사 연구는 없다. 앙가주망을 주창한 지식인 사르트르가 방일하여 일본의 지식인과 나누는 지적 교류의 맥락을 조명하는 것은 1960년대 일본의 지식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그의 방일 연구는 외국문학의 번역 수용뿐만 아니라 당대 일본 사회의 지성사를 제한적이지만 究明하는 가치가 있다.

세계적 문호 사르트르의 사유와 방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이력을 살펴야한다. 사르트르는 1905년 6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해군 기술 장교였던 부친을 잃은 그는 외가로 가서 외조부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한 살 때는 조선소장과 재혼한 모친을 따라 라로셀(La Rochelle)<sup>5)</sup>에서 지냈다. 그는 1925년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해 명문인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갔으며 1928년 철학교수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철학과 문학에 열중했다. 사르트르는 1931년 르 아브르(Le Havre) 고등학교 철학교수로 부임했고 1945년 그만 둘 때까지 리옹(Lyon), 파스테르(Pasteur), 콩도르세(Condorcet) 등 고등학교를 전전하며 철학을 강의했다. 그동안 그는 후설(Husserl)의 현상학<sup>6)</sup>과 하이데거(Heidegger)의 존재론에 심취하였고 1936년 본격적인 철학논문 「상상력」을 썼다. 1938년 그의 사유가 응집된 『구토』가 출간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기상병으로 나갔다가 다음 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민간인으로 가장해 탈출<sup>7)</sup>했다. 1945년 사르트르와 메를

3) 増田靖彦, 「サルトルは日本で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その黎明期を中心として」, 『人文』 6, 學習院大學, 2007, 81~101면.

4) 石井素子, 「日本における J-P・サルトルの受容についての—考察—翻譯・出版史の視点から」,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52,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2006, 93~107면.

5) 그는 라로셀에서 ‘자기의 지반과 의무, 그리고 특히 권리를 믿고 있는 부르주아 층의 생태’를 알았다. 이것은 후에 「어느 지도자의 유년시절」과 『구토』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역, 『구토』, 문예출판사, 2018, 332면.

6) 1933년 청년 사르트르는 몇 달 동안 독일에 머무르며 후설의 철학을 공부했고 1937년 후설의 정신철학을 자세히 분석한 『The Transcendence of the Ego(자아의 초월)』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게리쿠스, 지여울 역,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황소걸음, 2012, 52면.

7) 사르트르는 위문 온 시민으로 위장해 도망에 성공해서 파리로 돌아왔다. J-P・サルトル, 白井浩司

로 폰티(Merleau-Ponty)는 『현대(Les Temps Modernes)』<sup>8)</sup>를 창간했고 사르트르는 이 잡지에서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사르트르는 1948년 혁명민주연합(Rassemblement démocratique et révolutionnaire)이라는 중도적 정당을 조직해 사회 정치에 비판을 가했지만 공격을 받고 당은 해체되었다. 자서전 『말』을 출간한 1964년, 사르트르는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사르트르는 자신은 공적인 명예를 모두 거부하며(개인적 이유) 노벨문학상은 진실의 자유와 문화의 평화공존을 위해 걸맞지 않다(객관적 이유)고 했다.<sup>9)</sup> 또한 그는 베네수엘라 반독재를 지지하고 있는데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노벨상을 수여한 단체 역시 베네수엘라 저항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sup>10)</sup> 그의 거부는 노벨상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서 사르트르의 명성을 한층 드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사르트르는 철학에서 시작해 실존주의 철학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문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정치참여(앙가주망)로 나타난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문학을 통한 사회참여가 제창되었다. 그는 알제리 해방운동에서 자국 프랑스를 비판했고 베트남 전쟁에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식인의 입장에서 사회문제에 깊이 참여하여 사르트르는 ‘사회참여형 지식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변모가 항상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에 공명했을 때는 그의 지지자였던 카뮈와 메를로 폰티가 그를 비판했고 세계에서는 정치로만 기울어져가는 그의 모습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사르트르의 공산주의 탐닉은 이념보다는 낭만적인 환상(그리고 반미주의)이라는 평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사르트르의 국제적 명성을 떨어뜨리게 했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본 사르트르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그의 문학에 대한 당대 일본의 이해는 『구토』의 전문번역자인 시라이 고조(白井浩司)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라이는 사르트르 문학세계를 3단계로 구분한다.<sup>12)</sup> 제1기는 문학과 철학 두 분야에 기반을

---

譯, 『嘔吐』, 人文書院, 1994, 176면.

8) 사르트르와 메를로 폰티는 『현대』를 창간해 정치적, 문학적인 논평을 했다. 중요한 논설을 그 때마다 공동으로 평론했다. 『현대』는 1956년 헝가리 봉기 특별호를 간행했다. ヴァルター・ピーメ, 岩波哲男譯, 『サルトル』, 理想社, 1967, 176면.

9) 竹内芳朗・鈴木道彦 編, 『サルトルの全體像』, ぺりかん社, 1966, 404면.

10) 마치엔 외, 최옥영·한지영 역, 『노벨문학상 100년을 읽는다』, 지성사, 2006, 405면.

11) Tony Judt,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VINTAGE, 2012, p.170.

뒀은 전전의 시기다. 철학에서는 『존재와 무』, 문학에는 『구토』가 대표작이다. 제2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사르트르가 외부세계로 눈을 돌렸으며 사상과 활동이 정치로 향하게 된다. 특히 1945년 『현대』를 창간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모여들어 세계의 눈이 사르트르를 주목한다. 제3기는 그가 공산주의와 공명하는 시기이다.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와 평화」를 저술하고 세계 각지를 다니며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sup>13)</sup>하고 고발했다.

그렇다면 1966년 일본을 방문한 시점의 사르트르는 노벨문학상 거부자이며, 베트남 전쟁 반대자, 문학적으로는 제3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르트르 전집 출간이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66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르트르 초청이 전집 간행과 맞물려 있었다. 출판사의 상업적 홍보 전략이 초청의 상당한 이유였던 셈이다. 하지만 세계적 지성을 맞아야 했던 번역자와 문인, 지식사회에게 초청은 부담인 동시에 많은 것을 묻고 앎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르트르의 방일이 결정된 후 일본사회가 어떻게 사르트르의 사유를 이해하고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인과 대면하고 강연을 해야 했던 사르트르 역시 자신의 명성과 위신을 생각했을 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에 대한 기초지식 흡수에 집중했다. 사르트르는 방일하기 전 일본에 관한 책을 영역과 불역을 통해 읽었고 일본에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일본에 관한 책을 읽었다. 초청 방문 행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적 문화교류의 현장이다. 1966년 사르트르에게 정치와 사회참여가 화두였으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3차례의 강연에서도 ‘사회참여’가 이야기 됐다. 사르트르와 일본 지식인의 만남은 어떠한 지적 풍경을 만들었을까. 28일간이나 일본에서 머물면서 사르트르는 일본의 어떤 점을 보고 주목했을까. 게다가 일본 지식인과 사르트르의 교류의 한편에서는 일본 대중독자의 사르트르 서적 소비도 있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본의 사르트르 번역과, 초청 사업을 통한 문화교류 및 수용의 확대, 일본 대중의 사르트르 서적 소비 등을 고찰하여 당대 일본의 지성사와 다층적이

12) カフカ 城 變身/サルトル, 「水いらず 部屋 汚れた手」, 『世界文學全集』 38, 1968, 426~432면.

13) 1965년 4월, 사르트르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플로베르에 대해 강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베트남에 폭격을 시작하자 그는 1년 전부터 약속한 강연을 취소했다. 白井浩司, 『サルトルとその時代』, アートデイズ, 2012, 257면.

고 통시적인 번역 문화 현상을 규명하는 번역문화사 연구다. 자료는 각종 번역 텍스트, 사르트르의 방일에서 통역, 안내를 맡은 아사부키 토미코(朝吹登水子)<sup>14)</sup>의 『사르트르, 보부아르와 28일간-일본』<sup>15)</sup>, 신문, 잡지, 원서, 사르트르의 3회 강연, 『지식의 옹호』<sup>16)</sup> 등을 참고했다.

## II. 방일 이전, 일본의 사르트르 번역

이 장에서는 사르트르 방일 이전, 일본의 사르트르 번역과 수용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방일 이후를 논하기로 한다. 사르트르의 최초 저작 1936년 『상상력』, 1938년 『구토』, 1943년 『존재와 무』는 전전, 전중에 간행되었는데 일본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르트르의 존재를 잘 몰랐지만 번역은 빠르게 시도되었다. 『신프랑스평론(Nouvelle Revue Française)』(N.R.F) 1937년 7월호에 게재된 「벽(Le Mur)」의 일본어역은 1938년 1월에 다이가도(大雅堂) 발행의 잡지 『時論』의 제1권 6-7호에 실렸다. 1938에 발표한 『구토(La Nausée)』의 발췌역도 거의 동시에 일본에 소개되었다. 시인이자 번역가인 호리구치 다이가쿠(堀口大學)는 1940년 『중앙공론』 1월호에 「벽」을 게재했다.<sup>17)</sup>

사르트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젊은 프랑스연구자 혹은 프랑스과 학생들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번역의 대표자는 시라이 고조(白井浩司)였다.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예과 학생이었던 시라이 고조는 대학교 2학년 때 프랑스

14) 朝吹登水子は 보부아르와 사강의 번역자로 알려져 있는데 1966년 사르트르 방일 때 통역, 안내자로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그 이후도 사르트르와 교류를 계속했다. 石井素子, 「日本における J.P. サルトルの受容についての一考察—翻譯・出版史の視点から—」, 『京都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52, 京都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 2006, 106면.

15)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ポーヴェ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16) 佐藤朔 外, 『知識人の擁護』, 人文書院, 1967.

17) 참고로 사르트르의 작품은 이웃나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48년 단편 「벽」의 번역이 한 잡지에 게재되면서 한국 독자에게 소개된 이후 한국전쟁 중에 그의 희곡이 공연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장 폴 사르트르는 전후의 한국문단과 문화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강충권 외, 『실존과 참여-한국의 사르트르 수용 1948-2007』, 문학과 지성사, 2012, 5면.

잡지 『신프랑스평론』을 구독하면서 1937년 7월호 사르트르의 「벽」을 읽고 분위기와 묘사방법이 달랐다고 말했다.<sup>18)</sup> 당시 경제학부 책임교원이었던 사토 사쿠(佐藤朔)<sup>19)</sup>는 시라이에게 마루젠(丸善)<sup>20)</sup>에 사르트르의 『구토』가 입고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시라이는 『La Nausée』의 번역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후쿠나가 다케히코(福永武彦)·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와 대화하며 사르트르의 생각을 상상하고 고민했다.<sup>21)</sup> 그는 고바야시 히데오가 한 권의 책을 잘 읽는 것은 번역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흥내를 내 『구토』를 번역했다.<sup>22)</sup> 시라이는 1년 이상 걸려 완역한 『구토』의 원고를 게이오기주쿠 교수인 다카하시 히로에(高橋広江)에게 보여 준다. 1940년 당시 『文化評論』의 주필이었던 다카하시 교수는 시라이가 번역한 『구토』의 처음 부분을 잡지 1호에 실어주었다. 다음 2호에 속편이 실릴 예정이었지만 태평양전쟁의 전개로 용지 배급이 중단되어 『文化評論』은 휴간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사르트르의 소식과 수용이 자연스럽게 단절된 것이다.<sup>23)</sup>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연합국의 통제 하에 해외정보는 점령군인 미국에 의지하게 된다. 사르트르는 1945년 1월~5월까지 『Le Figaro』, 『Combat』 두 신문의 파견과 대학 강연을 위해 1945년 12월부터 1946년 4월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이 시기에 사르트르의 활동으로 미국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빠르게 그의 작품이 영어

18) 佐藤朔 外, 『いま, サルトル: サルトル再入門』, 思潮社, 1991, 26면.

19) 사토 사쿠는 게이오기주쿠 프랑수문학부장으로 1938년 사르트르의 『노-제(구토)』를 읽고 무명작가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사르트르의 번역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방일 때는 게이오기주쿠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시라이 고조와 함께 초대를 담당했다.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ボ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40면.

20) “시라이는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루젠에 가서 단 한 권 남겨져 있던 『라노제』, 즉 내가 번역하게 된 『구토』를 샀다. 마루젠의 양서부에서는 예상주문이 세 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권은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와 사토 사쿠(佐藤朔)씨가 샀다. 사토 사쿠 씨는 당시 경제학부 책임교원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高橋교수가 소개시켜 주셔서 가끔 마루젠의 양서부에서 뵈었다.” 佐藤朔 外, 『いま, サルトル: サルトル再入門』, 思潮社, 1991, 27면.

21) サルトル, 伊吹武彦譯, 『サルトル著作集』 4, 人文書院, 1961, 309면.

22) 松浪 信三郎 他, 「サルトルの實存主義(對談)」, 『理想』 401, 理想社, 1966, 35면.

23) “전쟁 중 사르트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도 걱정했었는데, 상해에서 나온 프랑스어 신문에 「군인이 된 사르트르」라는 정말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뿐으로 어떤 뉴스도 없었습니다.” 松浪 信三郎 他, 「サルトルの實存主義(對談)」, 『理想』 401, 理想社, 1966, 35면.

번역 되었다. 미국의 『타임즈』지는 1905년생의 사팔뜨기의 작은 남자가 『존재와 무』라는 철학적 대저작을 전쟁 중에 간행하고 『현대』라는 종합잡지를 창간해 사람들을 실존주의로 인도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했다.<sup>24)</sup> 전쟁으로 사르트르의 소식이 끊긴 일본은 미국을 통해 사르트르를 마주하게 되었다.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	번역자	원문
1946.12	水いらず・壁	世界文學社	伊吹武彦, 吉村 道夫	Intimité Le mur
1950.12	壁: 短篇集 (サルトル全集, 第5卷)	人文書院	伊吹武彦, 白井浩司, 窪田啓作, 中村眞一郎	
1951.2	嘔吐: 長篇小説 (サルトル全集, 第6卷)	人文書院	白井浩司	La nausée
1951.4	汚れた手: 劇作集 (サルトル全集, 第7卷)	人文書院	白井浩司, 鈴木 力衛	Les mains sales Morts sans sépulture
1952.1	文學とは何か: シチュエーション 2 (サルトル全集, 第9卷)	人文書院	加藤周一, 白井健三郎	Qu'est-ce que la littérature? : Situations 2

이와 함께 전후 일본의 프랑스문학 연구자의 노력으로 번역을 통한 사르트르 저작 수용이 재개 되었다. 이 당시 교토의 출판사는 대전 직후 공습을 받은 도쿄와 달리 인쇄기나 자재가 남아 있었다. 번역자는 출판이 가능한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사르트르의 출판을 시작하였다. 전후 일본에서 최초 간행된 사르트르의 단행본은 교토의 세계문학사<sup>25)</sup>에서 1946년 12월 간행한 『水いらず・壁』이다. 시라이가 번역한 『구토』도 『水いらず・壁』 간행 2개월 후 1947년 2월 동경 세이지사(靑磁社)에서<sup>26)</sup> 『現代佛蘭西小説集』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1966년 『사르트

24) J-P・サルトル 白井浩司, 『嘔吐』, 人文書院, 1994, 298면.

25) 세계문학사는 1946년 4월 월간지 『世界文學』을 창간했다. 제2호부터 제33호까지 불문학자 이부키 다케히코(伊吹武彦)가 편집자였으며, 1950년 제38호로 폐간되기 전까지 5년간 최신 외국문학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石井素子, 「日本における J. P. サルトルの受容についての一考察—翻譯・出版史の視点から」, 『京都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52, 京都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 2006, 97면.

르 전집』27)을 완결하는 인문서원(교토)이 1950년부터 전집을 기획하고 출간을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이 전집본이 사르트르 대표번역서가 된다.

1950년에 간행된 사르트르 전집은 장편 『자유의 길』제1부, 장편소설 『구토』, 단편집 『벽』인 데 모두 1만부를 넘었다. 인문서원의 『サルトル全集』은 1950년부터 1957까지 8년간 20권이 간행되었고 전집 간행이 완료된 1966년에는 160~170만부를 넘게 팔았다. 그중에서도 대표 베스트셀러는 『구토』로 1960년 말에 6개월에 1만부씩 증쇄되는 기염을 토했다. 사르트르의 방일 기간에는 『실존주의는 무엇인가』가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번역과 출판을 통해 대중이 사르트르의 저서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갔는데, 전후 일본은 과연 어떤 실감으로 사르트르를 받아들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전의 ‘자유’가 천황제 비판의 터부에서 일본인을 일부 해방시켰다.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미국의 지배 하에서 일본인은 전쟁의 막대한 피해와 가난, 정신적 공황과 갑자기 닥친 해방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전후 초기 일본은 의외로 사르트르의 문학을 ‘해방무드=성의 해방=육체의 문학’<sup>28)</sup>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번역된 사르트르의 「내밀」이 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는 육체의 문학으로 사르트르의 작품을 이해했는데 사실 해당 작품은 육체를 혐오하고 마음을 중요시하는 내용이었다. 아사부키는 그 무렵 일본에서 사르트르가 에로작가로 얘기되는 것을 증언하기도 했다.<sup>29)</sup> 이후 프랑스문학 연구자는 사르트르 문학이 육체의 문학이 아니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중시했다.

26) 시라이는 친구인 가타야마 슈조(片山修三)가 靑磁社라는 책방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 『구토』의 원고를 낸 것이다. 松浪 信三郎 他, 「サルトルの實存主義(對談)」, 『理想』 401, 理想社, 1966, 35면.

27) 인문서원은 사르트르에게 자신의 출판사가 『サルトル全集』을 간행하고 싶다는 뜻을 편지로 전했다. 도쿄의 프랑스 저작권사무소의 조언도 있었다. 사르트르의 출판사 갈리마르사는 이미 간행서 11권(선지불금 65만엔) 계약을 제안했다. 石井素子, 「日本における J.P.サルトルの受容についての一考察—翻譯・出版史の視点から」,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52,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2006, 99면.

28) DOUG SLAYMAKER, 「When Sartre was an erotic writer: body, nation and Existentialism in Japan after the Asia-Pacic War」, Japan Forum 14(1),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77~101.

29)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ボ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109면.

이때 사르트르의 주저인 『구토』가 역할을 한다. 1938년에 프랑스에서 간행된 『구토』는 1947년 일본에서 간행되어 작가-프랑스-일본 사이에 놓인 10년 정도의 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그의 실존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셈인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과 일본인의 정신에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된다. 잃어버린 가치의 폐허에서 절망과 허무라는 황무지에 던져진 전후의 실존주의 문학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윤리를 재건하는 데 일조한 것이다.

『구토』의 세상과 자신을 향한 관조와 번민, 굴욕과 구토감 그리고 고립감은 ‘실존적 고독’이나 ‘실존주의적 자살’ 등의 형태로 전후 일본인의 굴욕감과 사회혼란의 분위기에 잘 조응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실존주의의 ‘삶에서 스스로의 선택, 자유와 책임’의 성격은 천황제 철폐와 민주주의사회 건설 및 개인의 자립과 성장 등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대 심리와도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실존적 사유는 다층적인 감성과 쉽게 결부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재적 힘이 있었다.

문단에서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실존적 자살’이 있었고, 1950년경 일본에 많이 읽힌 전쟁문학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의 『25시』가 당대 유행한 실존주의의 자장 안에서 ‘실존적 소설’로도 평가되었으며, 전쟁을 겪은 어린 세대의 기억과 감각을 대변했다고 평가받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초기 소설 등도 실존주의의 자장하에 있었다. 무뢰파의 소설, 전쟁문학, 신세대문학까지 많은 문학적 현상과 감성이 실존주의적 감각과 표현으로도 일부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오에 겐자부로는 대학에서 사르트르와 관련된 논문을 썼고 유명한 소설 『개인적인 체험』도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 카뮈의 실존주의 작품도 실존주의 문학의 유행에 일조했다.

이처럼 실존주의 문학은 일본문단 및 독서계에 영향을 미쳤다. 사르트르 저작은 일본의 전문가, 비전문가들, 독자들에게 의해 넓게 수용되고 사르트르의 사상의 변화만큼 그 분야가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존주의 문학, 참여문학, 연극, 정치, 지식인론과 양가주망까지 뻗어나갔다. 1950년대 일본에서는 사르트르의 저작은 정기적으로 수입되고 있었고 『사르트르 전집』 또한 일본에서 인기였다. 무엇보다 노벨문학상 거부와 베트남전쟁 비판, 공산주의에 공명한 사르트르의 존재 자체가 세계적인 이념 갈등과 냉전 시대 지식인의 한 자화상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르트르는 단순한 문학자가 아니라 철학자, 지식인이며

‘세계적 지성’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1966년 일본에서는 『사르트르 전집』의 완역을 축하하기 위해 게이오기주쿠와 출판사 인문서원의 주도로 사르트르를 일본으로 초대한다. 이 초청 기획은 사르트르와 전문번역자, 프랑스문학자, 대중독자, 출판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남이었고 세계적 문호이자 지성의 육성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초대형 문화이벤트였다. 세계적인 지식인을 초대하기 위해 일본은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또한 사르트르는 무엇을 일본에게 전했는가.

### Ⅲ. 1966년 사르트르의 일본 방문과 일본 지식계

전후 일본이 소개한 해외문학 속에서 사르트르처럼 장기간에 걸쳐 관심을 받은 외국인 작가는 없었다. 사르트르의 인기는 프랑스보다도 일본에서 더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sup>30)</sup> 『사르트르 전집』을 간행한 교토의 인문서원은 사르트르에게 ‘일본휴식 여행’을 제안한다. 『구토』를 번역해 사르트르를 알린 시라이 고조, 사토 사쿠가 속한 게이오기주쿠가 중심이 된 초대였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이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해 교류하고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sup>31)</sup> 실제로 사르트르의 방일 일정에서 핵심은 그의 강연, 그리고 히로시마 방문과 베평련 대회 방문이었다. 이 장에서는 전자의 국면을 살펴본다.

먼저 강연 이전의 방일의 맥락을 살펴보면, 人文書院과 게이오기주쿠가 사르트르의 방일을 추진한 시기는 1965년부터였다. 사르트르가 1966년 2월에 초청을 수락했고 강연원고는 9월에 일본에 보냈다. 실제 그의 방문은 ‘계약 부부’ 동반으로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사르트르만 초빙하는 계획이었는데 시몬느 드 보부아르도 같이 초대하게 된다. 초청자가 휴식여행을 권한 것처럼, 흔히 외국 인사의 방문은 부부 동반 여행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성사된 사르트르의 방일 기사는 9월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18일 도착과 강연 등 여행스케줄이 보도되었다.<sup>32)</sup> 하지만 애초

30) 「講演に早くも希望者が殺到—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兩氏の來日」, 『朝日新聞』, 1966.8.29, 夕刊5면.

31) 「サルトルへの期待—來日に寄せてより深い理解を」, 『讀賣新聞』, 1966.9.9, 夕刊7면.

계획과 달리, 보부아르가 1966년 6월 아사부키 토미코에게 연락해 파리에서 만나 9월 방일하는 것을 논의한다.<sup>33)</sup> 그 자리에 사르트르도 동석했다. 보부아르 저작을 번역하고 있던 아사부키 토미코는 사르트르가 일본을 방문할 동안 안내자, 동행자, 통역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sup>34)</sup> 인문서원, 게이오기주쿠와 함께 아사부키 토미코가 일본 독자와 사르트르의 매개자로 등장한 셈이다.

이렇게 재조정된 사르트르의 방일 기간은 1966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28일이었다. 일본 하네다에 도착한 그는 하네다의 에어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르트르는 방일의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가지 이유로 방문했다고 답한다. 첫 번째는 자신이 24살 때 프랑스어 교사로 교토의 日佛학교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고 말하며<sup>35)</sup> 예전부터 일본에 오고 싶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사르트르는 일본의 전통문화, 현재의 일본생활 그리고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르트르는 일본문학의 불어 번역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문학 번역 소개를 희망했다. 그는 특히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에 관심이 있었다.<sup>36)</sup>

32) 두 명은 강연회, 잡지의 좌담회,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하코네, 교토, 나라, 규슈 등을 여행한 후 10월 17일에 떠날 예정. 두 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게이오 대학 미타(三田)에서 학술강연 「문학과 말」 사르트르 씨

2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히비야 공회당에서 강연 「정치활동」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토회관에서 강연 「연극에 대해」 사르트르 씨

10월 15일 베평련의 티치인에 출석. 「サルトル氏は18日」, 『毎日新聞』, 1966.9.3, 14면.

33) 朝吹登水子, 『わが友 サルトル, ポーヴォワール』, 讀賣新聞社, 1991, 9면.

34) 아사부키가 사르트르, 보부아르와 함께 일본을 함께 다니며 쓴 글이 바로 『사르트르, 보부아르와 28일간-일본』이다. 이 기록은 신문, 잡지가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한 방일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방일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35)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ポ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10면.

36) 사르트르는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작품에 그려진 성적 집념의 세계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사르트르는 다니자키를 못 만난 대신 아타미의 다니자키의 별장에서 그의 부인 마츠코(松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사르트르가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작가는 미시마 유키오였다. 사르트르는 미시마의 작품 중 불어역 된 『금각사』, 영어역의 『연회 후』를 관심 있게 읽었다고 한다. 사르트르는 미시마에 관심이 있었으나 미시마는 사르트르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르트르가 오는 강연, 연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사르트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일본문학 작품의 불어 번역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사르트르는 프랑스에 돌아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미친노인의 일기』를 번역해 『현대』에 게재했다.

이처럼 사르트르에게 일본 방문은 기본적으로 ‘여행’이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3번의 강연이 가장 중요했다. 그 강연은 9월 20일 게이오기주쿠 미타(三田)에서 이루어진 「지식인의 위치」, 9월 22일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지식인의 역할」, 9월 27일 교토회관에서 열린 「작가는 지식인인가」였다. 원래 사르트르가 생각한 강연 계획은 「문학과 말」, 「작가와 정치참가」, 「연극에 대해」였다. 하지만 방일을 위해 읽은 일본 자료에서 일본 지식인이 처한 입장이 비판받는 프랑스 지식인과 닮아있다고 판단한 사르트르는, 강연 주제를 ‘지식인의 옹호’로 바꿨던 것이다.<sup>37)</sup>

변경된 강연 제목을 보면, 사르트르가 문학자가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일본인 앞에 서기로 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계적 문학자 사르트르의 문학관을 듣고 싶었던 독자, 문인은 일부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지식인-작가-사회참여’의 문제를 포괄하는 강연은 일종의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이기도 했다. 또한 지식인론의 주창자로서 사르트르가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마주선 지식인의 소명을 대외에 전파하는 의미도 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적 업적(응용과학, 의학, 문학, 정밀과학 등)으로 유명해지고 그 유명함을 활용해 자신의 분야를 넘어 사회와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핵분열에 대해 연구하고 핵병기를 발명하는 사람은 학자이지 지식인은 아니다. 같은 학자가 자신이 만든 무기의 파괴력의 무서움을 알고 이를 정부에 고발할 때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sup>38)</sup>

9월 20일 게이오기주쿠 미타에서 이루어진 제1차 강연 「지식인의 위치」<sup>39)</sup>에서

37) 사르트르는 일본사회사상연구소 발행의 영문간행문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Ideas in Japan)을 읽고 일본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지식인이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자 강연 테마를 급히 변경했다고 한다. 「本になったサルトルの講演」, 『毎日新聞』, 1967.2.23, 3면.

38) 「知識人とはなにか」, 『毎日新聞』, 1966.9.20, 夕刊2면.

39)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첫 번째 일본 강연회가 20일 오후 4시부터 동경, 미타의 게이오기주쿠 西校舎 518번 교실에서 행해졌다. 일본 학생에게 큰 인기가 있는 사르트르의 강연이어서 미타의 산 위에는 이른 시각부터 학생들이 「베트남 반전에 협력하자」 등 환영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르트르의 도착을 기다리는 여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강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청 4000명 중 500명이었고, 입구에서 신분증명 확인 절차가 있었다. 「聴衆に深い感銘—ポーポーア—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정의했다. 그에게 지식인이란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지적 명성에서 쌓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권에게 조언하고 견제하는 존재였다. 원자물리학자가 원자를 연구했을 때는 학자이지만, 원자폭탄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반대 선언을 하면 비로소 지식인이 탄생한다는 것이다.<sup>40)</sup>

나는 저번 20일 제1회 강연에서 지식인은 ‘지적기술자’임과 동시에 ‘지배계급에 이용되는 점’에서 이중의 모순을 가진 존재임을 제기했다.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제2회 강연은 지식인을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지식인은 혜택 받지 못한 계급이 아닌 중산계급에서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중산계급은 지식인과 공통점을 갖지만, 이 계급의 인간은 지식인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고드는 차원에서 살지 않았다. 지식인이야말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지식인을 인정하지 않는다.<sup>41)</sup>

사르트르는 히비야 공회당 2차 강연에서 1차 강연에서 말한 지식인의 정의를 재차 설명하면서 「지식인의 역할」<sup>42)</sup>을 보완 설명한다. 그에게 지식인은 지적기술자이자 지배계급에 쓰이는 중간계급이었다. 이러한 이중적 모순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식인은 지배계급의 필요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탐구자로서 지식인은 자신의 연구에 엄밀성과 보편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지식인은 사회와 국가에 내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모순적 지위를 극복하고 사회 문제를 통찰하며 개입할 수 있는 식견과 실천력을 갖춘 지적기술자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인은 사회 상황과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실천적 지식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사르트르는 베트남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의 전쟁 논리를 구축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지식인 고문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세계 각국의 지식인이 미국 ‘평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sup>43)</sup> 또한

ル サルトル兩氏 大盛況だった慶大會場, 『朝日新聞』, 1966.9.2, 朝刊5면.

40) 「サルトル氏 慶應大で初講演 - 知識人は社會の証人, 『讀賣新聞』, 1966.9.21., 15면.

41) 「そと孤獨も宿命 - 知識人の役割り, 『讀賣新聞』, 1966.9.24. 7면.

42) 회장의 청중은 추천으로 선발된 2천 명이었지만 아사히신문사에 신청한 입장권 구입의 엽서는 3만으로 엄청난 인기였다. 내 지인 중에서 한 사람당 5~6매 신청 엽서를 보냈다는 사람도 있었다.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ポ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76면.

사르트르는 일본의 안보투쟁을 거론하며 투쟁을 실패로 여기는 당시 일본지식인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1960년 6월 19일 12시를 넘기자 신안보조약이 자연성립 되었는데,<sup>44)</sup> 투쟁이 미일안보조약개정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기시 내각의 퇴진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방일 중지라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 지식인은 투쟁하는 과정에서 동참하는 여러 시민과 함께 대중의 각성과 주체화를 촉진하였다.<sup>45)</sup> 이러한 점은 그의 지식인론에 부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르트르는 노동자와 연대한 공동전선을 지적하면서 투쟁이 방법론적으로는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식인은 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면서도 결국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내포하는 존재이다. 작가는 사회의 누구라도 사용하는 공통언어를 사용해 작품을 만든다. 그런데 공통언어는 전문어에 비해 이미지의 양이 너무 많거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작가가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인 것이다. 게다가 작가의 문장은 내용이 아니라 문장이나 어휘 자체가 중요하다. 작가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 작가도 또한 지식인인 이상, 사회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식인과 협력해야 한다.<sup>46)</sup>

제3차는 사르트르가 「작가와 정치참가」(9월 27일 1시, 교토회관)라는 제목으로 논했는데, 그는 작가도 지식인이며 공통언어를 사용해 작품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지식인과 협력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연을 들은 번역자 시라이는 3차 강연이 그의 『문학은 무엇인가』에서 전개하고 있는 양가주망의 이론을 훨씬 더 깊은 형태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sup>47)</sup> 오에 겐자부로

43) 미국정부의 고문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중국에 의해 원격 조작된 북베트남이 미국동맹국인 남베트남에 대해 행해진 침략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미국 지도자들의 ‘평화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식인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숨긴 폭력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베트남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어느 가난한 국가에 행한 침략전쟁, 2억의 사람이 수백만의 농민에 대해 강제로 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을 매일 명시해야 합니다. 『知識人の役割』, 『朝日ジャーナル』 8(42), 朝日新聞社, 1966, 17면.

44) 半藤一利, 『昭和史戦後篇』, 平凡社, 2009, 446면.

45) 조경희, 「전후 일본 ‘대중’과 ‘시민’의 교차와 길항-1960년 안보투쟁을 둘러싼 서사를 중심으로」, 『사이(SAI)』 12,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2, 105면.

46) 「時代の責任を負う一作家の社會参加」, 『讀賣新聞』, 1966.9.28, 7면.

는 작가가 언어를 사용해 앙가주망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언어”라고 지적했다.<sup>48)</sup> 고지마 데루마사(小島輝正)는 사르트르가 ‘개인, 보편성, 언어’에 대해 다루었고 개인의 존재 표현인 문학작품이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하는가를 논했다<sup>49)</sup>고 지적했다.

사르트르의 세 번의 강연 후 지식인, 대학교수, 평론가, 작가, 철학자 사이에서 논쟁이 들끓었다. 강연을 둘러싼 다수의 논쟁이 잡지에 실려 관심도를 알 수 있다.<sup>50)</sup> 사르트르의 강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사르트르의 강연의 효과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논쟁을 통해 일본 지식인과 사회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우선 사르트르의 의견을 찬성하는 쪽을 살펴보자.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메이지체제 지식인을 대표적 지식인으로 여기거나 미국의 케네디 브레인의 모방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이 행해진 것은 매우 적절하다”<sup>51)</sup>고 했다.

---

47) 「サルトルの知識人論--それをどう受けとめるか(座談會)」, 『朝日ジャーナル』 8(43), 朝日新聞社, 1966, 90면.

48) 「サルトルの知識人論--それをどう受けとめるか(座談會)」, 『朝日ジャーナル』 8(43), 朝日新聞社, 1966, 92면.

49) 「サルトル氏の講演を聞いて」, 『朝日新聞』, 1966.9.28, 夕刊9면.

50) 사르트르의 강연 후 일본 지식인 사이에서 많은 반향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잡지에 게재된 주요한 논문, 기사명이다.

- \* 「サルトルの知識人論」(座談會) 安部公房, 大江健三郎, 白井浩司. 『朝日ジャーナル』 10月16日號.
- \* 「サルトルの言語観への疑問」 山崎正和. 『中央公論』 11月號.
- \* 「サルトルの對談」(座談會) 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 大江健三郎, 加藤周一, 坂本義和, 鶴見俊介, 日高六郎. 『世界』 12月號.
- \* 「ベトナム戦争と反戦の原理」(討論集會) 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 小田實, 開高健, 久野収, 竹内好, 谷川雁, 小松左京, いいだ・もも, 鶴見良行他. 『世界』 12月號.
- \* 「サルトルが提起した問題」, 平井啓之. 『展望』 12月號.
- \* 「サルトル的知識人について」, 武田泰淳. 『展望』 12月號.
- \* 「私の文學と思想」(座談會) 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 平井啓之, 鈴木道彦, 海老坂武, 白井浩司. 『文芸』 12月號.
- \* 「サルトル・人と文學」(座談會) 浅利慶太, 佐藤朔, 埴谷雄高, 平井啓之, 堀田善衛, 安岡章太郎. 『三田文學』 12月.
- \* 特集「現代知識人の役割と機能」(座談會, その他) 『中央公論』 昭和42年1月號. 譯者代表, 『知識人の擁護』, 人文書, 1967, 156면.

51)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ボ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84면.

오에가 말하는 메이지시대 지식인들은 서구식 근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체제에 순응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케네디의 정부 운영 핵심인 케네디 브레인 집단은 하버드 출신으로 조직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반론을 내놓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한 집단이었다. 오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일본사회를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서 작가 가이타카 겐(開高建)도 “무책임 속에서 풍화되고 있는 일본지식인들에게 지적 쇼크를 주었다”<sup>52)</sup>고 진단했다.

또한 사르트르 강연 자체를 칭찬하는 작가도 있었다. 작가 다케다 다이준(武田康淳)은 “일본의 문학자는 저런 강연을 할 수 없다. 문제를 추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며<sup>53)</sup> 강연에 감명 받은 모습을 보인다.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는 “사르트르의 논리 흐름이 좋고 반대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는 논쟁술”<sup>54)</sup>을 언급하며 그의 논리적 사고방식을 칭찬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문학평론가인 에토 준(江藤淳)<sup>55)</sup>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부르주아 성립이 다른데 일괄해서 지식인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주장에 논리의 섬세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일본은 각 나라에 따라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서로 다를 것이라 주장”<sup>56)</sup>한 작가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도 있다. 야스오카는 사르트르의 논의는 자신도 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리 아리마사(森有正)는 “일본의 현실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사르트르의 태도를 지적한다.<sup>57)</sup> 사르트르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간취하

52) 朝吹登水子, 앞의 1995 책, 85면.

53) 朝吹登水子, 앞의 1995 책, 85면.

54) 「來日初講演をきいて」, 『毎日新聞』, 1966.9.22, 5면.

55) 에토는 8월부터 『文藝』에 「成熟と喪失」의 연재를 시작했다. 9월에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방일해서 10월 12일 오에, 가토 슈이치, 坂本義和, 鶴見俊輔, 日高六郎과 좌담회를 했지만(『世界』12월호), 보부아르는 오에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에토는 오에도 이 둘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小谷野敦, 『江藤淳と大江健三郎 戦後日本の政治と文學』, 筑摩書房, 2018, 218면.

56) 「來日初講演をきいて」, 『毎日新聞』, 1966.9.22, 5면.

57) 논쟁을 하기 보다는 사르트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청중도 다수였다. 제1회 강연을 온 게이오 문학부 학생 히라노(平野)는 사르트르 저작을 이미 읽어서 강연 「지식인의 위치」가 쉽게 이해되었다고 했다. 쇼치대학(上知大學) 학생 도시카와(歳川)는 사르트르가 받아들여진 것은 형가리 문제 등에 나타난 사르트르의 태도가 실제 전쟁경험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는 지식인론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의 강연은 프랑스와 일본의 역사와 당대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본 지식계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사르트르가 바라본 일본 지식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견을 야기했는데, 일본 사회는 사르트르 강연의 강연 내용과 거기서 비롯된 논쟁을 각 미디어에 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사르트르의 ‘일반론’적인 지식인론을 듣는 일본인의 상황이다. 일본에서 1960년대 초중반은 당대 열강의 핵개발에 대한 반핵투쟁과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원폭 피해 수습의 문제의식이 활발해지는 시점이었다. 1960년대 초중반 원폭피해자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시민단체 간 갈등이 심하긴 했지만, 사르트르 초청을 기획할 무렵인 1965년 5월 22일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가 재한피폭자실태 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정부나 대한적십자사를 향해 피폭자조사와 의료구제를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7월1일부터 피해자 등록을 실시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1968년 히로시마에서 최초로 한국인 위령제가 열린 후 한국에서 이듬해부터 위령제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일본 국내를 넘어 한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국제적 문제였는데, 일본에서는 1965년 4월 오다 마코토(小田實)가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등과 함께 ‘베트남 평화를 위한 시민연합’(베평련, べ平連)을 조직해 베트남 반전운동<sup>58)</sup>을 시작하고 있었다. 즉 ‘지식인론’의 사르트르가 일본에 오기 전 이미 일본의 여러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당대 국내외에서 가장 핵심적 쟁점이었던 반핵과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적으로 현실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르트르가 동시대 일본 지식인의 노력과 고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본 지식계의 실천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 일부 반감을 불러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지식인론은 방일 이듬해인 1967년

---

강조했다. 세신(聖心)大學의 교수 S·W는 사르트르의 사상이 젊은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58)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대조적이었다. 한국은 5만이 넘는 전투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전쟁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과 미국을 배경으로 한 동아시아 내의 지위상승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 고도성장과 함께 보급된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생히 보도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이 일본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초기의 무관심 또는 무심한 전쟁인식에서 벗어나 반전의 씨가 발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현정·김진기,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평화연구』 26,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214~215면.

『지식인의 옹호』로 출간돼 일본에서 많이 읽힌다. 결국 이는 ‘세계적 지성’ 사르트르가 일본의 지성이 될 수 있었느냐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그가 원폭피해지 히로시마와 베평련 집회라는 일본의 현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지적 국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IV. 양가주망과 현실: 히로시마(広島)와 베평련(ベ平連)

사르트르는 3번의 강연을 통해 지식인의 위치, 역할 그리고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일본인에게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철학을 일본인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히로시마, 베평련 토론대회 참가였다. 사르트르는 1956년 헝가리사태에서 소련군의 개입을 비난하고 이를 지지했던 프랑스 공산당도 비판했다. 또한 그는 1958년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프랑스 드골 정권의 위협성을 경고했다.<sup>59)</sup> 드골 지지자들은 사르트르의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고 그의 법적 구속을 원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부조리한 세계의 정세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참여를 통해 ‘세계지식인’ 사르트르는 세계에 끝없이 노출했다. 이 장에서는 그의 양가주망을 드러내는 히로시마 방문과 베평련 토론 대회참가를 통해 사르트르와 일본 지식계의 ‘지식인’의 면모를 살펴본다.

일본은 사르트르가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1966년 8월 29일 기사로 실었다. 일본은 사르트르가 “히로시마를 방문을 계기로 핵병기문제의 절실함을 실감해서 세계에 많이 발언”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일본 도착 후 사르트르는 방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게이오기주쿠와 인문서원의 스케줄을 협의한다. 그때 사르트르는 “일본 국내 정치를 직접 다루는 것은 피하고 싶고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서 기고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었다.<sup>60)</sup> 히로시마 방문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59) 사르트르와 달리 카뮈는 알제리 독립에 반대했다. 카뮈는 프랑스정부와 알제리 총독부 및 식민자 본가들 그리고 극우 알제리-프랑스인들이 한 발짝도 물러섬이 없이 고수하고 있는 예전대로의 프랑스-알제리 l'Algérie française가 얼마나 비현실인지를 지적하고 이러한 ‘식민지 체제의 종식’과 함께 알제리인들과 프랑스인들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알제리 프랑스 연방”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양재, 「알제리 전쟁과 카뮈」, 『佛語佛文學研究』 86,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216면.

반영되어 <히로시마의 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히로시마에는 원수폭을 둘러싸고 원수금-공산당계, 원수협-사회당계가 있어 정치색이 없는 집단인 <히로시마의 집>의 사무국장인 다나베 코이치로(田辺耕一郎)가 안내를 맡았다.

1966년 10월 9일 히로시마에 도착한 사르트르는 <히로시마의 집>의 다나베가 작성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였다. 사르트르는 원폭으로 파괴된 돛 옆을 걸을 때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말했고 원폭위령비와 평화기념관을 견학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사르트르는 피폭자가 있는 히로시마 적십자원폭병원에도 방문했는데 병원에서는 촬영을 거절했다. 하지만 피폭자가 단 1만 2천 엔의 생활보조를 받고 있을 뿐이고 피폭당한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사르트르를 놀라게 했다. 사르트르는 피폭자가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찢찢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피폭자 간 연대가 원만하지 않았고 원수폭 금지운동 관련자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피폭자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다.

가토: 마지막으로 히로시마 인상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르트르: 정말 비참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오에가 제창하는 운동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는 마치 원폭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전부 잊어버린 것입니다. 원폭기념관은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보부아르: 나는 꽃을 들고 부인에게 건네주기로 했는데 …… 매우 불편했습니다.

가토: 오에 씨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그러한 것을 썼습니다.<sup>61)</sup>

사르트르는 방일 이후 히로시마 방문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폭자가 순교자로 여겨진다고 했다.<sup>62)</sup> 이 당시 원폭돔의 철거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사르트르는 원폭돔이 보기 흉하기는 하지만 원폭돔이 상징으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르트르는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돌아와 『세계』의 좌담회<sup>63)</sup>에 참석한다.

60)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ボ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40면.

61) サルトル J.P.他, 「サルトルとの對談-知識人・核問題をめぐって(座談會)」, 『世界』 253, 岩波書店, 1966, 68-69면.

62) 「被爆者は平和の殉教者-広島でサルトル氏語る」, 『朝日新聞』, 1966.10.11, 朝刊14면.

63) サルトル J.P.他, 「サルトルとの對談-知識人・核問題をめぐって(座談會)」, 『世界』 253, 岩波書店, 1966, 48-69면.

‘지식인과의 대담’에서 가토 슈이치가 히로시마의 인상을 묻자 사르트르는 피해자를 잊은 듯한 히로시마와 원폭기념관에 실망을 표명하고 히로시마의 실정을 알리는 오에 겐자부로<sup>64</sup>의 활동을 지지한다.

이 강렬한 경험 이후 사르트르는 방일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자회견에서도 히로시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거론했다. 사르트르는 원폭희생자들이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과 그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사회에 강조했다.<sup>64</sup> 그의 발언은 미디어를 통해 일본에 알려지면서 원폭피해자 구호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서 인식되는 데 일조하게 된다.

히로시마에 이어 사르트르는 10월 15일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에 참석했다. 이 집회는<sup>65</sup> 베트남 전쟁 반대에 일본인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토론하는데 토론시간은 약 8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토론대회에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아사부키 그리고 오다 마코토<sup>66</sup>, 가이타카 겐, 학습원대학교수인 구노 오사무(久野収), 도쿄대 교수 히다가 로쿠로(日高六郎), 평론가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참석하여 「베트남 전쟁과 현대세계」란 테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르트르는 “원폭이 존재한 순간부터 현대는 그것에 의존하는 사회구조가 되고 휴머니즘은 사라지며 공포가 지배하게 되었다. 베트남에 핵병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존슨 대통령은 언제라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한다.”<sup>67</sup>고 하며 원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보부아르는 여성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자고 호소했다.

가이타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원래 프랑스가 일으킨 것입니다. 프랑스인에게는 그런 방화범이라는 의식이 있습

64) 「傳統的と現代的 “日本の兩面に愛着” サルトル氏, ポーポール女史歸國, 『讀賣新聞』, 1966.10.17, 14면.

65) 이 토론대회는 9월 30일까지 참가희망응모가 마감되었는데, 1200명의 3배에 가까운 3천 2백매의엽서가 왔다. 「サルトル氏ら討論會に出席 べ平連, 『毎日新聞』, 1966.10.10, 5면.

66) 오다 마코토는 『일본의 지식인』에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식인은 지식인 일반이라는 보편개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프랑스의 지식인」의 특수성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小田實, 『日本の知識人』, 講談社文庫, 1980, 14면.

67) 「行動で強く抗議を, 『毎日新聞』, 1966.10.16, 14면. 사르트르가 방일한 해 1966년 6월 미국은 베트남 북쪽의 항만과 시가지를 습격했다. 미국이 목표로 한 것은 주요항인 하이퐁(Hai Phong)과 수도 하노이(Hanoi)였다. 三野正洋, 『わかりやすいベトナム戦争』, 光人社, 2008, 249~250면.

니가? 보부아르 씨의 자전에는 거의 제1차 베트남전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보부아르: 자전에는 그다지 쓰지 않았지만, 사르트르 주재의 「현대」지에는 꽤 베트남전쟁을 비평했습니다.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이 패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승리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르트르: 가이타카 씨, 나는 매일 베트남인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이타카 씨보다 훨씬 가까이 베트남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당신은 프랑스를 비난하는 것에 급급해 지금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sup>68)</sup>

그런데 갑자기 가이타카 겐이 사르트르에게 베트남 전쟁의 프랑스 책임을 지적하면서 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가 질문을 하자 참석장에서는 환성이 터졌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크게 당황했다. 애초에 초청될 때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사르트르의 조건이었다. 그는 히로시마 병원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피했다. 하지만 베평련의 토론대회에서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먼저 대답한 것은 보부아르였다. 그 자리에서 보부아르는 “베트남 독립전쟁은 알제리 독립전쟁과는 다르게 프랑스 공산당도 포함되어 모두가 베트남 독립을 찬성”<sup>69)</sup>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부아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20세여서 베트남 전쟁을 잘 몰라서...”라고 하며 당황해했다. 게다가 담당 통역가가 제대로 통역하지 못하고 말을 끊어 통역하자 사르트르가 이를 금방 알아차렸다. 사르트르는 주최자 측에 통역의 부실을 항의했다. 주최자 측은 아사부키를 호출해 보부아르의 통역을 부탁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이후 사르트르의 대답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르트르는 일본에 올 때부터 정치적 발언을 피하고자 했다. 과거 1950년대 중반 일본을 방문한 소련 작가 에렌부르그도 시종일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sup>70)</sup> 일본인은 소련 문학과 정치체제가 궁금했지만 에렌부르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냉전시대

(68) 「サルトル氏も論戦—核兵器脅威訴える—ベトナム平和討論會」, 1966.10.16, 朝刊14면.

(69) 朝吹登水子, 『サルトル, ポ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213면.

(70) 1956년 방일한 소련 작가 에렌부르그는 정치적 발언을 회피했다. 이에 관해서는 양아람, 「1957년 소련 작가 에렌부르그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해빙」, 『동아시아문화연구』 77,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원, 2019, 181~219면 참조.

였고 사회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에렌부르크의 행동은 일면 이해가 되었다. 그에 비해 사르트르는 비판적 지식인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지식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모순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비판적 시선 그리고 직접적이고 정직한 공적 발언이 사회참여 작가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명성이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초청 측이나 청중, 문인 등 모두 사르트르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눈치를 봤다. 그 누구도 비판적 질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출한 질문은 다른 청중의 마음을 대변한 행동이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사르트르가 제2차 강연에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자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었다.

2차 강연에서 그가 미국과 미국의 지식인 그룹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정작 베트남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프랑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베평론 토론회에서 “프랑스를 비난하다가 미국의 잘못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사르트르의 답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지식인이 민족주의를 넘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문제는 ‘지식인론’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다. 자국의 잘못에 눈을 감고 경중을 따지거나 양비론적 태도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명분은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개입은 프랑스의 전쟁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프랑스는 전후에 식민 지배를 다시 획책하는 베트남 전쟁을 개시한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전쟁책임을 외면하거나 낮게 보는 듯한 사르트르의 애매한 발언은 ‘세계의 지식인’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지식인’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사르트르는 가이타카에게 오히려 당신은 세계정세를 모른다며 면박을 준다. 또한 사르트르는 1차 강연에서 일본 지식인은 탁상공론만 할 뿐 사회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라고 폄하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베평론 토론회 후 행해진 데모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sup>71)</sup> 결국 냉정을 잃고 자국 프랑스를 일부 변호하는 ‘세계적 지식인’의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습을 오다 마코토 등 베평론 일원이 지켜봤다. 이 ‘세계적 지성’이 당대 일본의 지성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71) 『Sartre Addresses Antiwar Meeting』, 『THE JAPAN TIMES』, 1966.10.16, p.2.

## V. 방일과 대중 독자의 소비

사르트르는 강연, 방문을 통해 일본 지식인계와 소통했다. 이 소통은 많은 대중을 수용하지 못했고 대화는 상당 부분 지식인에 한정되었다. 이와 별개로 독서시장에서는 일반 대중이 작품과 미디어를 통해 사르트르와 대면했다. 일반 일본인에게 사르트르의 문학은 어떻게 소비되었을까. 지금까지 주로 지식인을 다루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대중 독자의 사르트르 소비를 논한다.

사르트르의 번역은 전전에 작품 『내밀』, 『벽』, 『구토』를 중심으로 이어졌고 전후에도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판매되었다. 그 중에서 『구토』는 1953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구토』는 사르트르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최고로 뽑은 작품이기도 했다.<sup>72)</sup> 프랑수아학 연구자 시라이 고조의 『구토』 번역<sup>73)</sup>으로 일본 독자는 사르트르의 대표작을 접하게 되고 사르트르라는 작가의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시라이는 사르트르 문학세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는 전전 시기로 철학의 『존재와 무』, 문학의 『구토』가 대표작이다. 제2기는 전후로 사르트르의 사상과 활동이 정치로 향하게 된다. 1945년 『현대』를 창간해 세계가 사르트르를 주목했다. 제3기는 그가 공산주의와 공명하면서 『공산주의자와 평화』를 저술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고발했다. 이러한 시라이의 번역과 해설이 대중의 작품이해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그의 번역은 상당한 인기를 끌어 전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번역문학 중에 『구토』가 포함되었다.<sup>74)</sup>

---

72) 1975년 미셸 콩타와의 인터뷰 「70세의 자화상」에서 『구토』는 사람들에게 꼭 읽히고 싶은 작품이자 자신에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다.

73) 다카하시 노부아키(高橋允昭)는 시라이의 『구토』의 번역에 대해서 구독기호를 변환할 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역의 관례에서는 프랑스원문을 인용부 《 》는 「 」로 바꿔 이탤릭체로 강조된 경우 몇 개는 방점을 붙였다. 그러나 시라이역에서는 《 》가 어떤 때는 〈 〉에, 때로는 「 」으로 바뀌었고, 이탤릭체의 곳은 〈 〉를 넣었다. 게다가 프랑스 원문에 이러한 구독기호를 옮겨 바꿀 때 이 역서에는 한 줄의 설명서도 없다. 佐藤朔外, 『いま, サルトル: サルトル再入門』, 思潮社, 1991.7, 44면.

74) 「3 Foreign-Language Translations Make Best-seller List in Japan」, 『THE JAPAN TIMES』, 1975. 4.19, p.7.

사르트르전집 절찬 중판!

3회! 단편집 벽(水いらず他四編) 伊吹武彦譯 정가 220엔

전후 에로티시즘으로 사르트르 오해의 원인이 된 문제의 작품집.

4회! 구토 白井浩司 정가 250엔

20세기 전반의 12대 소설의 하나로 거론된 사르트르의 처녀작 장편. 여기에 그의 문학사상의 시작이 있다. (개역결정판)<sup>75)</sup>

흥미한 현대에 맞서 인간 존재의 근원 문제에 도전하는 현대 문학의 양대 최고 걸작<sup>76)</sup>

일본 작가들도 『구토』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가이타카 겐은 『구토』를 읽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으며 이시카와 준(石川淳), 아라 마사히토(荒正人)도 『구토』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노마 히로시(野間宏)는 『구토』를 읽고 “전후문학에서 이제까지 일본문학에 없었던 ‘눈’은, 일본에 있던 개개의 것,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것을 보는 눈”<sup>77)</sup>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작가 오에 겐자부로(오에 겐자부로는 사르트르를 졸업논문 주제로 썼다.<sup>78)</sup> 또한 오에는 프랑수아 모리악의 神의 시점을 비판한 사르트르에게서 소설의 리얼리티를 배웠다고 밝혔다.<sup>79)</sup> 작가 시이나 린조(椎名麟三)는 시라이의 번역 덕분에 사르트르의 작품을 읽었다고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sup>80)</sup> 사토 사쿠는 사르트르가 방일하기 전 대표작으로 『구토』를 거론하며 “현상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탐구하려 한 흥미로운 작품”<sup>81)</sup>이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프랑스보다도 일본에 있는 작가이자 저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작품”<sup>82)</sup>

75) 「광고: 사르트르 전집. 구토, 벽/인문서원」, 『讀賣新聞』, 1951.3.10, 1면.

76) サルトル・ピュートル, 白井浩司・清水徹譯, 『サルトル・ピュートル』(世界の文學 49), 中央公論社, 1964.

77) 浦野衣子, 「日本におけるサルトルの移入にめぐって」, 『比較文學年誌』1, 早稲田大學比較文學研究室, 1965, 141면.

78) 白井浩司, 『サルトル入門』, 講談社, 1966, 14면.

79) 오에 겐자부로, 김유곤 역,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사, 2000, 53면.

80) 白井浩司 他, 「サルトルの世界(座談會)」, 『自由』8(10), 自由社, 1966, 153면.

81) 佐藤朔, 「老いを知らぬ來日するサルトル, ポーポオール」, 『毎日新聞』, 1966.8.23, 3면.

으로 『구토』를 소개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작품은 전후 혼란 속에서 재건과 부흥을 외치는 일본 사회, 다른 한 편으로는 고독감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내면과 공명하며 큰 지지를 받았고 그 열기는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1966년 방일이 결정되자 서점가에서는 “「사르트르 방일기념」 출판물이 신판, 구판이 섞여 먼저 범람하는 현상”<sup>83)</sup>이 일어났으며 신판, 중판, 잡지를 소개하는 신문기사가<sup>84)</sup>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사르트르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정보제공이었으며 ‘사르트르 특수’를 노리는 출판사의 판매 전략이었다. 방문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미디어는 다음 사르트르 방문지가 출판판매를 준비하고 광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르트르가 방문하는 주요 도시들도 그의 스케줄을 보도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벳부에서 한 독자는 사르트르에게 『사르트르 전집』을 내밀며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다.<sup>85)</sup> 직접 사르트르와 대면하지 못한 독자들은 번역서를 소비하며 대리만족했다. 일반 대중 독자는 어려운 그의 철학 서적보다는 소설 『구토』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인이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사르트르가 만년에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가장 바랐던 소설 『구토』는 어떤 내용일까.

주인공 앙투안 로캥탱은 아프리카나 극동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한 후 프랑스 지방 항구마을 부빌에 체재하면서 18세기 귀족 드 로르봉 후자에 관한 역사서를 집필한다. 로캥탱의 일상은 단순하다. 오전 중에서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카페 마브리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 기묘한 경험과 감각이 체감되기 시작한다. 길거리에서 종이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거나 해변에서 물수제비를 하려고 작은 돌을 잡자 구토감을 느낀다. 도서관에서는 때로 독학자가 말을 걸어온다. 로캥탱은 독학자와의 식사에서 그의 단조로운 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한계가 이미 드러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휴머니즘에 강한 구토감을 느끼고 가게를 뛰쳐나간다.

82) 「講演に早くも希望者が殺到—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兩氏の來日」, 『朝日新聞』, 1966.8.29, 夕刊5면.

83) 飛田 就一, 「サルトルの來日とチョムスキーの來日と(思想の動向)」, 『立命館文學』 255, 立命館大學人文學會, 1966, 89면.

84) 「新刊, 重版, 特集など—出版界のサルトル ボーボアール台風」, 『毎日新聞』, 1966, 10.11, 3면.

85) 「内海の船旅を満喫—サルトル氏, 別府入り」, 『讀賣新聞』, 1966.10.6, 夕刊10면.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을 알고 있다. 1월부터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구토’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쉽게 내게서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어떤 병도 아니고 지나가는 발작도 아니다. 나 자신인 것이다. 조금 아까 나는 공원에 있었다. 마로니에 뿌리는 내가 앉은 의자 밑에서 땅에 뿌리를 박고 있었다. 그것이 뿌리였다는 것이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다. 어휘가 사라지자 그것과 함께 사물의 의의이며, 그것들의 사용법이며, 또 그 사물의 표면에 사람이 그려놓은 가냘픈 기호가 사라졌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는 숙인 채로 나는 혼자서 그 검고 울퉁불퉁하고 마디가 저서 내게 공포심을 주는 나무더미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 계시를 받는 것이다.<sup>86)</sup>

빈번히 구토감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현상이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상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나간다. 가령 그는 공원에서 마로니에 뿌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 뿌리에 붙여진 ‘인간의 어휘’를 망각하자 낯선 물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로니에 뿌리는 자신과 무관한 낯선 사물이 되어 우연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사물에 붙인 기호가 사라지자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시라이는 이 장면이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sup>87)</sup>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호텔로 돌아온 로캥탱은 전 연인인 안니<sup>88)</sup>로부터 편지를 받고 파리로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그녀는 로캥탱에게 ‘완벽한 순간’은 없었다고 하며 ‘단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로캥탱은 다시 부빌로 돌아와 독학자가 남자 중학생에게 음란한 행위를 해서 도서관에서 쫓겨난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로캥탱은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과 사물의 존재 방식을 의식하게 되고 인간의 세속적이고 부조리한 욕망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구토감의 원

86)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역, 『구토』, 문예출판사, 2018, 237면.

87) 松浪 信三郎 他, 「<對談>サルトルの實存主義」, 『理想』 401, 理想社, 1966, 37면.

88) 사르트르는 1966년 방일했을 때 문학좌담회에서 그것을 다룬 이후 여러 곳에서 안니의 모델에 대해 밝혔다. 그것은 그의 최초 연인이었던 시몬느 졸리베라는 강렬한 개성의 인물로 사르트르는 19세 때 당시 22세였던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J-P·サルトル, 鈴木道彦 譯, 『嘔吐』, 人文書院, 2010, 328~329면.

인과 성격, 실존적 고독 그리고 실존적 삶의 문제를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필을 떠나는 로캉탱은 <철도원의 가게>에서 재즈<머지않아 언젠가><sup>89)</sup>듣고 역사서가 아닌 한 편의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내용의 『구토』는 사실 명성에 비해 일본 대중 독자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독자는 그의 철학서 대신 소설을 택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다. 유명세로 인해 소구력은 있었지만 독자에게 지나치게 독서력이 요구됐다. 그래서 한 권을 채 읽지도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독자도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토’라는 제목에는 익숙했다. 흔히 ‘구토’는 주위에 얽혀있는 의미를 잃어버려 ‘단지 그곳에 있는 것’의 존재 그 자체로서 나타난 것이 초래하는 감각이라고 얘기된다.<sup>90)</sup> 그래서 소설의 로캉탱은 사물에 인간이 붙인 기호가 사라지자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포심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일반 독자에게 어려운 것이고 그들은 로캉탱이 사물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응시할 때 유발하는 구토를 접하게 된다. 이때 구토란 혐오의 다른 표현이며 외부로부터의 고립감을 포괄한 ‘세상과의 거리감’으로 체감되는 셈이다. 로캉탱의 전 연인이 ‘단지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듯이,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 삶의 중압감과 삶을 살아가는 자체의 곤란함이 자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뒤섞인 현실’을 자각한 존재의 몸부림과 ‘낮선’ 세상에 대한 거부가 구토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작품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대중 독자는 구토란 단어가 표출하는 뉘앙스를 통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이해한 것이다. 또한 『구토』의 대표 전문번역자인 시라이의 해설을 통해서도 일부분 이해가 가능했다. 작품 제목 ‘구토’와 관련해 시라이는 원제를 따라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번역해야 옳지만 글자의 느낌으로 “구토”가 좋을 것이라 생각해 『구토』로 번역했다고 한다. 시라이는 『구토』는 로캉탱 내부에서 일어난 병적증상이 아닌 존재하는 것의 ‘대명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라이는

89) 로캉탱은 재즈 <머지않아 언젠가>를 들으며 위안을 얻고 구토감을 진정시킨다. 장근상, 『사르트르의 『구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185면.

90) 芳川泰久・荻野哲矢・中野茂, 『ベストセラー世界の文學 20 世紀 1』, 早美出版社, 2018, 165면.

『구토』가 소설적 형식을 통해 실존주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접근이 어려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철학의 소설화의 시도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어려웠지만 소설의 형식을 띠게 되면서 철학이 지식인에만 한정된 것에 비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실존주의와 문학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르트르가 더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한 달간의 방일을 끝내고 돌아간 뒤, 일본 대중 독자는 좀 더 다채롭고 심화된 사르트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출판계는 사르트르 문학을 세계문학전집에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했다. 1968년 가와이데 출판사는 컬러판으로 카프카와 함께 사르트르를 세계문학전집에 넣었다. 전집 해설에는 사르트르의 1966년 방일을 새롭게 추가하고 컬러판으로 사진을 실어 독자들에게 생생한 실감을 전달하고 있다. 1976년에는 슈에이샤의 세계문학전집에 카뮈와 함께 배치되었다. 1977년 지쿠마서점도 세계문학전집에 사르트르를 넣었다. 이 책에는 연보에 사르트르의 방일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작품집에 사르트르의 방일과 사진이 추가되면서 일본 대중은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존 『사르트르 전집』은 너무 방대해 일반 독자가 모두 구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대신 세계문학전집 속 한 권으로 편입된 사르트르의 작품집은 독자에게 효용성이 높았다. 이 외에도 대중은 사르트르 단행본을 개별 구입해 읽을 수도 있었다.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이 『구토』였기 때문에 대표번역자 시라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토』의 개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 평생에 걸쳐 『구토』를 번역한 그는 자신의 번역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개역을 하고 싶다는 의지<sup>91)</sup>를 피력할 정도로 해당 작품에 애착이 깊었다. 시라이 이후 『구토』를 번역한 스즈키 미치히코(鈴木道彦)도 원제를 번역하는 것에 꽤나 고심했다고 한다. 「구역질」로 번역할까도 했지만, 출판사의 희망, 시라이의 번역을 참고해서 『구토』<sup>92)</sup>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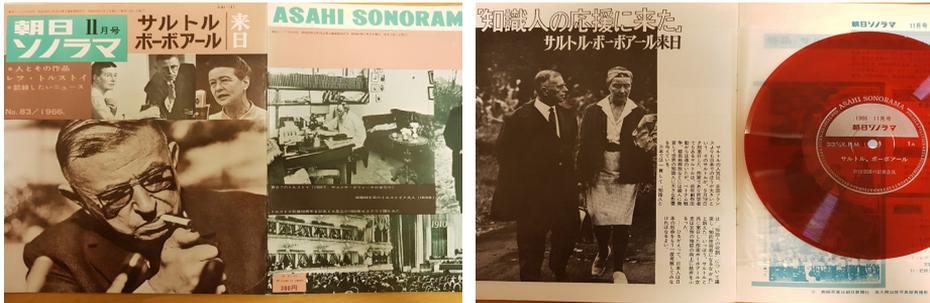
91) “이번 판을 개정함에 있어 몇 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곳은 아니더라도 완전한 오역을 발견해 옛날 판의 독자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개가 있어 장래 다시 개정의 기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サルトル, 伊吹武彦(譯者代表), 『サルトル著作集』 4, 人文書院, 1961, 310면.

92) 스즈키의 『구토』 번역은 Pléiade版 『小説作品集(OEuvres Romanesques)』에 수록된 텍스트를 저본으로 했다. 이것은 1981년 간행되었는데 초판의 오자가 증쇄판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 한다.<sup>93)</sup> 일본 독자는 이러한 번역자의 수고로 점점 더 나은 작품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사르트르의 3번에 걸친 강연은 『지식인의 옹호』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1967년 2월 인문서원에서 출판되었다. 이로써 일본 대중은 戰前에 소설 일부를 접했고, 전후에는 1952년에 번역된 『문학이란 무엇인가』로 사르트르의 문학론과 조우했고, 방일 후는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을 집대성한 『지식인의 옹호』가 일본 대중에게 소비된 셈이다.

그런데 당대 독자는 단순히 저작만을 통해 사르트르를 접한 게 아니었다. 일본 지식계와 미디어는 사르트르를 보다 많은 일본인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사는 1966년 11월호 잡지 『아사히 소노라마』에 사르트르 특집을 기획하여 사르트르의 방일을 정리해 소개하고 번역자인 시라이 고조의 사르트르 강연의 감상을 실었다. 그런데 편집부의 기획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그 방식이 매우 놀라웠다. 편집진은 ‘사르트르의 기자 회견과 1차 게이오 강연’을 직접 녹음하여 기록한 레코드를 잡지 안에 넣어서 판매했다.



〈그림 1〉 『朝日ソノラマ』 11월호 표지 및 레코드 자료

새로운 2005년판을 사용하고 동시에 Folio版(2007년판)도 참조했다. 또한 시라이 고조 씨의 번역, 특히 최후에 전면적인 개역을 시행한 인문서원 신장판(1994)과 두 종류의 영어역(Lloyd Alexander New Directions Pub판, Robert Baldick의 Penguin Books)판을 참조했다. J-P·サルトル, 鈴木道彦 譯, 『嘔吐』, 人文書院, 2010, 333~334면.

93) 시라이는 사르트르 방일 때 1938년 6월 구입한 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는 저서에 「자신의 최고의 저서를 처음 번역했다」고 써주었다.(J-P·サルトル, 白井浩司 譯, 『嘔吐』, 人文書院, 1994, 306면) 이는 시라이에 의해 일본에서 『구토』가 널리 읽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제2차 대전, 전후의 혼란기를 지나 지금 여기 사르트르가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르트르는 사상적으로도 올 때마다 변천을 거쳐 공산주의 동조자가 되고, 정치적 참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구토』, 『존재와 무』의 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이번 일본 방문에 행해진 3회의 강연에 의해 그는 현재의 자기 존재방식을 진심으로 훌륭한 논리로 해명했다. 그것은 우선, 지식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지식인이 중산계급 출신이고,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과학자든지 어떠한 기술을 몸에 익힌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가가 단순히 기술자에서 머문다면 그는 결국 그를 교육한 체재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sup>94)</sup>

다시 말해 이 잡지는 부록으로 사르트르의 강연 음성을 제공했다. 레코드판으로 되어 있는 강연 음성은 잡지 맨 뒤에 끼워져 있다. 레코드 A면은 하네다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레코드 B면 게이오기주쿠에서 강연한 「지식인의 위치」가 녹음되어 있다. 이 기획은 사르트르의 강연장에 직접 가지 못한 신청자와 일반 독자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반 독자에게 사르트르의 철학서는 어렵다. 전문가의 해설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당사자의 구두 강연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게다가 레코드는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열풍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확산될 수 있었다. 아사히신문사의 기획은 상품의 판매 전략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지식의 대중화 작업이었다.

마이니치신문사도 방일 전후의 상황을 신문으로 알렸다. 특히 사르트르가 떠난 후 「사르트르의 방일」이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반전운동 등 사르트르의 기사를 10월 말까지 계속 실었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은 방일 후의 사르트르의 행보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식의 연속된 유입은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을 지속케 했으며 역으로 사르트르의 인지도를 일부 강화하고 사르트르 작품의 소비를 일부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만 1970년대 접어들면서 독자의 감성이 바뀌고 인기를 잃어간 오에 겐자부로처럼, 사르트르에 대한 일본의 주된 대중적 소비는 1960년대 중후반까지였다.

94) 『朝日ソノラマ11月』 83, 朝日新聞社, 1966.11.1, 2면.

## Ⅶ. 나오며

사르트르는 일본에서 28일 일정으로 주요 도시를 돌아가면서 일본을 체험했다. 일본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은 세 번의 강연이었다. 세계적 지식인이 일본에 방문한다는 사실에 일본인은 사르트르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사르트르 초청은 사르트르 저작 번역자들과 『사르트르전집』을 발간한 인문서원의 기획이벤트였다. 일본은 세계적 지성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다.

사르트르의 일정에서 강연과 함께 히로시마 방문이 중요했다. 잡지 『세계』 주최의 좌담회에서 가토 슈이치는 오에가 히로시마 피폭자들을 그려낸 『히로시마 노트』를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에게 소개했다. 히로시마 원폭돔과 기념관을 둘러본 사르트르도 어떠한 나라의 원폭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오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사상과 행동을 가장 첨예하게 접근해야 할 작가들이 사르트르에게 비판적 질문을 하거나 그의 말을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강연에서 “좌익정치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사이비 지식인이다”고 말한 사르트르를 두고 시라이가 “지식인이 되기 힘들다”<sup>95)</sup>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이다.

오히려 사르트르와 거리가 가까운 지식인일수록 그에 동조할 뿐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사르트르를 따라다니며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던 이들이 ‘비판’도 ‘질문’도 하지 않고 사르트르 옹호자의 한 사람으로 남았을 뿐이다. 그만큼 노벨문학상 거부자이자 세계 최고의 문호 사르트르는 대작가였고 일본 문인에게 부담스런 존재였다. 게다가 사르트르는 애초에 주최 측에 방일해서 자신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더욱 질문이 어려웠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와, 베트남 전쟁 반대의 베평련이 있는 일본에서 그 역시 정치적 발언을 피할 수 없었다. 세 번에 걸친 강연도 결국 정치적인 이야기였다. 일본 지식인이 비판받는 상황과 프랑스 지식인의 처지가 비슷해서 처음부터 강연내용이 문학에서 지식인론으로 바꾸었듯이 지식인이 사회적 참여는 양가주망으로 귀결되었

95) 佐藤朔 外, 『いま, サルトル: サルトル再入門』, 思潮社, 1991, 31면.

다. 하지만 베평련 토론회에서 베트남 전쟁의 책임으로 프랑스가 언급되자 사르트르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자국인 프랑스에 대한 비판을 조금은 회피하는 듯했다. 그동안 사르트르가 프랑스를 비판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르트르의 태도는 일본 지식인에게 충격이었다. 사르트르의 문학을 존경하고 그의 정치참여에 박수를 보내던 일본인은 자국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르트르의 이면을 일부 확인하고만 셈이다.

더욱이 사르트르가 돌아간 이후 방일 때 제대로 피력하지 않았던 사르트르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일변했다. 특히 대표적 번역자 시라이는 사르트르가 일본을 떠나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소련을 들렀다고 언급한다. 시라이는 “사르트르가 소련에 있는 숙청이나 수용소를 필요악으로 용인하며 매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sup>96)</sup>며 사르트르를 비판한다. 국가와 민족에 이어 인권 의식 및 윤리적 문제까지 제기된 셈이다. 에렌부르그도 사르트르가 원래 정치적인간이 아니어서 그의 정치적인 활동은 비극이었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민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환경 하에서 프랑스 ‘지식인’의 지성과 윤리가 당대 일본의 지식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사르트르가 ‘지식인, 양가주망의 사르트르’가 아닌 ‘문학자 사르트르’로 일본에 왔다면 그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고 그의 문학과 사상은 더 빛을 발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사르트르의 방일은 『사르트르 전집』 완역과 함께 민간단체와 지식인간 지적 교류를 상징하는 문화이벤트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였다.

투고일: 2019.11.05

심사일: 2019.11.28

게재확정일: 2019.12.09

96) 白井浩司, 『サルトルとその時代』, 아트デイズ, 2012, 258면.

## 참고문헌

『朝日新聞』

『毎日新聞』

『毎日新聞』

『文芸』

『世界』

『朝日ソノラマ』

『朝日ジャーナル』

장 폴 사르트르, 정명환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_\_\_\_\_, 정명환 역, 『말』, 민음사, 2008

\_\_\_\_\_, 정소성 역,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2016

\_\_\_\_\_, 방곤 역, 『구토』, 문예출판사, 2018

ヴァルター・ビーメ, 岩波哲男 譯, 『サルトル』, 理想社, 1967

朝吹登水子, 『わが友 サルトル、ボーヴォワール』, 讀賣新聞社, 1991

\_\_\_\_\_, 『サルトル、ボーヴォワールとの28日間—日本』, 同朋舎出版, 1995

サルトル, 白井浩司・鈴木力衛 譯, 『汚れた手: 劇作集』(サルトル全集 第7卷), 人文書院, 1951

\_\_\_\_\_, 加藤周一・白井健三郎 譯, 『文學とは何か: シチュアション 2』(サルトル全集 第9卷), 人文書院, 1952

\_\_\_\_\_, 伊吹武彦 外譯, 『サルトル著作集』4, 人文書院, 1961

\_\_\_\_\_, 佐藤朔 外譯, 『知識人の擁護』, 人文書院, 1967

\_\_\_\_\_, 伊吹武彦 譯, 『水いらず』, 新潮社, 1971

サルトル・ビュートル, 白井浩司・清水徹 譯, 『サルトル・ビュートル』(世界の文學49), 中央公論社, 1964

サルトル・ボーボアール, 白井浩司・河口篤・笹森猛正 譯, 『サルトル、ボーボアール』, 『世界文學全集』98, 講談社, 1975

J-P・サルトル, 白井浩司 譯, 『嘔吐』, 人文書院, 1994

\_\_\_\_\_, 鈴木道彦 譯, 『嘔吐』, 人文書院, 2010

カフカ・サルトル, 『変身/ 水いらず・部屋・汚れた手』, 『世界文學全集』38, 1968

Jean-Paul Sartre, *Nausea*, PENGUIN BOOKS, 1965

강충권 외, 『실존과 참여-한국의 사르트르 수용 1948~2007』, 문학과 지성사, 2012

케리콕스, 지여울 역,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황소걸음, 2012

마치엔 외, 최옥영, 한지영 역, 『노벨문학상 100년을 읽는다』, 지성사, 2006

- 오에 겐자부로, 김유곤 역,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사, 2000
- 장근상, 『사르트르의 『구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 A·보스케띠, 石崎晴己 譯, 『知識人の覇権—20世紀フランス文化界とサルトル—』, 新評社, 1987
- 三野正洋, 『わかりやすいベトナム戦争』, 光人社, 2008
- 小田實, 『日本の知識人』, 講談社文庫, 1980
- 小谷野敦, 『江藤淳と大江健三郎 戦後日本の政治と文學』, 筑摩書房, 2018
- 竹内芳朗·鈴木道彦 編, 『サルトルの全體像』, ぺりかん社, 1966
- 佐藤朔 外, 『いま,サルトル:サルトル再入門』, 思潮社, 1991
- 白井浩司, 『サルトル入門』, 講談社, 1966
- \_\_\_\_\_, 『サルトルとその時代』, 아트디즈, 2012
- 芳川泰久·荻野哲矢·中野茂, 『ベストセラー世界の文學 20世紀 1』, 早美出版社, 2018
- 半藤一利, 『昭和史戦後篇』, 平凡社, 2009
- Tony Judt,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VINTAGE, 2012
- 이양재, 「알제리 전쟁과 카뮈」, 『佛語佛文學研究』 86,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 이현정·김진기,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평화연구』 26,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2018
- 조경희, 「전후 일본 ‘대중’과 ‘시민’의 교차와 길항-1960년 안보투쟁을 둘러싼 서사를 중심으로」, 『사이(SAI)』 1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 松浪 信三郎 他, 「<対談>サルトルの實存主義」, 『理想』 401, 理想社, 1966
- 増田靖彦, 「サルトルは日本で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その黎明期を中心として」, 『人文』 6, 學習院大學, 2007
- 白井 浩司 他, 「サルトルの世界」, 『自由』 8(10), 自由社, 1966
- 石井素子, 「日本における J-P・サルトルの受容についての—考察—翻譯・出版史の視点から」,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52, 京都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2006
- 浦野衣子, 「日本におけるサルトルの移入にめぐって」, 『比較文學年誌』 1, 早稻田大學比較文學研究室, 1965
- 飛田就一, 「サルトルの来日とチョムスキーの来日と(思想の動向)」, 『立命館文學』 255, 立命館大學人文學會, 1966
- DOUG SLAYMAKER, 「When Sartre was an erotic writer: body, nation and Existentialism in Japan after the Asia-Pacic War」, *Japan Forum* 14(1),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Jean-Paul Sartre's Visit to Japan in 1966 and Acceptance of Sartre in Japan

Yang, Ah-lam

The article examines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Sartre's works translation in Japan and his visit to Japan in 1966. Sartre had many readers until the mid-1960s in Japan. Because of that concern, Sartre's visit to Japan in 1966 was the biggest cultural event. Jinbunshoin, which published the complete collection of Sartre, suggested to Sartre to take a 'Japanese Rest Trip'. Sartre visited for 28 days to Japan. The most important schedules were three lectures, a visit to Hiroshima and participation in the Beheiren debate. The Japanese intellectual community had engaged in intellectual exchanges with Sartre, a world-class intellectual. His visit to Japan was not only about accepting 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ture, but also study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Japanese society of the time. In short,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history of translation and culture that identifies intellectual history in Japan and multi-layered and orthodox translation cultural phenomena by considering the Japanese translation of Sartre, invitational projects, and the consumption of Sartre books.

Key Words : Engagement, Existentialism, Intellectual, Vietnam War, Hiroshima Atomic Bomb

